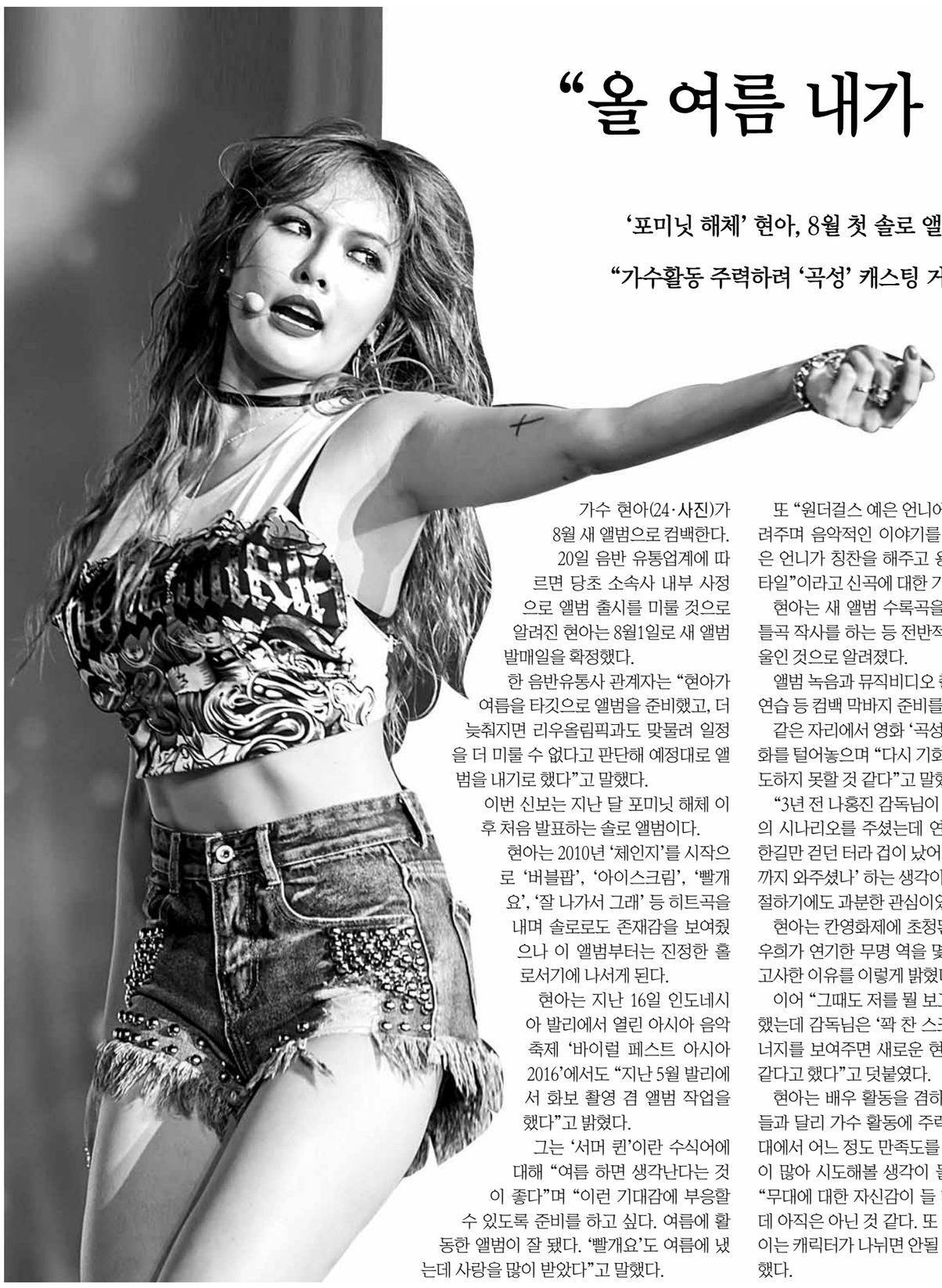

"올 여름 내가 퀸"

'포미닛 해체' 현아, 8월 첫 솔로 앨범

"가수활동 주력하려 '곡성' 캐스팅 거절"

가수 현아(24·사진)가 8월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

20일 음반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초 소속사 내부 사정으로 앨범 출시를 미룰 것으로 알려진 현아는 8월1일로 새 앨범 발매일을 확정했다.

한 음반유통사 관계자는 "현아가 여름을 타깃으로 앨범을 준비했고, 더 늦춰지면 리우올림픽과도 맞물려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앨범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신보는 지난 달 포미닛 해체 이후 처음 발표하는 솔로 앨범이다.

현아는 2010년 '체인지'를 시작으로 '버블팝', '아이스크림', '빨개요', '잘 나가서 그래' 등 히트곡을 내며 솔로로도 존재감을 보여줬으나 이 앨범부터는 진정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다.

현아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 음악축제 '바이럴 페스트 아시아 2016'에서도 "지난 5월 발리에서 화보 촬영 겸 앨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머 퀸'이란 수식어에 대해 "여름 하면 생각난다는 것이 좋다"며 "이런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싶다. 여름에 활동한 앨범이 잘 됐다. '빨개요'도 여름에 냈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또 "원더걸스 예은 언니에게 앨범 수록곡을 들려주며 음악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예은 언니가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스타일"이라고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아는 새 앨범 수록곡을 직접 선곡하고 타이틀곡 작사를 하는 등 전반적인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앨범 녹음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으며 안무 연습 등 컴백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영화 '곡성'에 캐스팅될 뻔한 비화를 털어놓으며 "다시 기회가 와도 겁이 많아 시도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3년 전 나홍진 감독님이 회사로 찾아와 '곡성'의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연기 경험이 없고 가수 한길만 걷던 터라 겁이 났어요.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중히 거절하기에도 과분한 관심이었죠."

현아는 칸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곡성'에서 천우희가 연기한 무명 역을 몇년 전 제안 받았으나 고사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때도 저를 뭘 보고 믿어주시는지 궁금했는데 감독님은 '꽉 찬 스크린에 무대에서의 에너지를 보여주면 새로운 현아의 모습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아는 배우 활동을 겸하는 여느 걸그룹 멤버들과 달리 가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지 않는 이상, 겁이 많아 시도해볼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다"며 "무대에 대한 자신감이 들 때 연기 생각도 날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또 (배역과) 무대에서 보이는 캐릭터가 나뉘면 안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타킹' 내달 9일 마지막 방송

강호동 "9년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2007년 방송을 시작한 SBS TV 예능 '스타킹'이 다음달 9일 종영한다.

SBS는 19일 "SBS는 물론 방송가 전체를 통틀어 대표적인 장수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온 '스타킹'이 9년간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9일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시즌1을 마무리하고 휴식기를 가진 '스타킹'은 같은 해 12월 토요일 저녁에서 화요일 밤으로 시간대를 옮겨 시즌2를 선보이며 재도약을 노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재가 고갈된 탓인지 자극적인 소재를 잇달아 선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마지막 방송분 녹화는 지난 18일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온 MC 강호동은 이날 녹화에서 "'스타킹'은 내 인생의 학교였다. 매 순간 이 무대에 설 때마다 배워가는 게 있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강호동은 "각박한 현실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창구로 '스타킹'의 문을 두드려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제작진은 9년간 출연자와 함께 울고 웃은 강호동과 이특, 두 MC와 패널로 활약한 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후속 프로그램은 미정이다. /연합뉴스

MBC라디오 최양락 하차에 외압 논란

방송인 최양락이 14년간 진행해온 MBC 표준FM(95.9㎒)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지난 5월 하차한 것과 관련,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양락의 아내 팽현숙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의 간판 코너였던 정치 시사 풍자가 갈등의 씨앗이었다"고 외압에 의한 하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청취자와 고별인사도 하지 못했다"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MBC는 이에 대해 "최양락씨의 하차는 라디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개편의 일환으로, DJ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콘셉트 자체가 바뀌었다"며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하차 통보 이후 실제 개편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최양락씨가 제작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스튜디오에도 오지 않아 방송이 펑크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며 "2주가량 대타 DJ인 박학기씨가 진행하도록 하며 최양락씨를 기다렸는데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박학기씨가 당시 방송에서 '최양락씨의 개인 사정으로 대신 진행한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 최양락씨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뒤늦게 논란이 되고 외압 의혹까지 나오게 돼 불가피하게 그간의 상황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재)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W〉(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무형유산 한마당 전통의 멋과 흥 55 감성애니 하루 (재)		30 MBC 다큐프라임(재)	20 나홀로 세계여행 55 TV블로그 꼼지락
2	00 가요무대 (재)	00 KBS 뉴스타임 1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20 텔레몬스터(재) 25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텔레몬스터(재)	00 세상발견 유레카 55 닥터365
3	00 특집다큐 프로 스포츠, 희망으로 가는 길 (재) 50 숨터 (재) 55 튼튼생활체조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싸이걸스(재) 55 책갈피요정 또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안녕! 괴발개발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방학특집 KBS 스페셜 〈한국의 과학과 문명 위대한 유산〉 55 숨터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드라마 〈W〉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특선다큐 〈서해 격렬비열도 사계〉	10 해피 투게더	10 능력자들	10 자기야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프랑스 와인기행〉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이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곰디와 친구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달라졌어요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양파가지 덮밥, 우엉깨즙 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얍!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곰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여라〉
20:40 다큐오늘 〈미꾸라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하늘 길을 오르다,K2 - 신의 땅에서 만난 사람들, 후셰〉
21:30 한국기행 〈왕피천에 사는 이유〉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내 여친은 지식인 2화〉
22:45 다문화 고부열전 〈친절한 며느리의 슬픈 고백〉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캐나다에서 온 '유익한' 남편 널래그〉
24:05 역사채널 e(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1일(음 6월 18일 甲辰)

子 48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마도 끼어들지 못하리라. 60년생 넉넉하게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2년생 많은 이익이 따른다. 84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행운의 숫자 : 61, 14

丑 49년생 손실이 따르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도 동반하리라. 61년생 자신을 낮출수록 귀히 대접받는 법이다. 73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매어 있다. 85년생 활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65, 36

寅 50년생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여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62년생 적폐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74년생 길경의 물결이 남실대고 있으니 곧 좋은 일이 있으리라. 86년생 새로움을 접하는 기쁨은 대단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81

卯 51년생 멀지 않은 장래가 될 것이니 철저히 준비하라. 63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마음을 푹 놓아라. 75년생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가 속출하리라. 87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74

辰 40년생 왁자지껄하게 떠들어 대고 있는 국세로다. 52년생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4년생 파생되는 형세까지 다각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다. 76년생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88년생 다듬을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2, 51

巳 41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53년생 기능의 활용에 신경 써라. 65년생 정성을 다 했을 때 미련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77년생 무리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된다. 89년생 넓은 마당으로 나아가리라. 행운의 숫자 : 94, 02

午 42년생 파격적인 변화는 향후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54년생 기서유역이라 하였으니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66년생 모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78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될 수 있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54, 80

未 43년생 착각으로 인한 오판을 하기 쉽다. 55년생 관계가 개선되어야 진전을 보일 것이다. 67년생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79년생 뜻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으니 삼가면서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35, 92

申 44년생 출입이나 진퇴의 균형이 필요하다. 56년생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68년생 다수자가 이마를 맞대고 심각하게 의논해야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80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행운의 숫자 : 49, 25

酉 45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57년생 추세에 영합하려 하지 말고 줏대를 가져라. 69년생 지혜로움을 발휘한다면 후환을 면하리라. 81년생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58, 78

戌 46년생 입에 발린 덕담보다 속 깊은 충고에 귀 기울여라. 58년생 비단 옷 위에 꽃을 더한 격이로다. 70년생 행운의 여신이 길을 안내하고 있다. 82년생 윤색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11, 56

亥 47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슷한 것은 모으자. 59년생 준비하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71년생 잘하다가도 일순간 방심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라. 83년생 남의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3, 2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